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0월 22일(주일) 제1168호

위기를 깨닫고 기도로 무장하고

이번 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 10월 24~26일 서빙고 본당 ... 오늘까지 참가신청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이 드디어 이번 주말 오른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각 캠퍼스 목회지원실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회비는 1만원이다. 모든 저녁집회는 등록하지 않아도 참석할 수 있는 오픈집회이다. 부흥집회 기간 동안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스쿨은 휴강하지 않고 부흥집회 참석으로 대체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는 'ReFORM'을 주제로 10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삼일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부흥집회는 안팎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의 장(場)이다. 어제(21일) 끝난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이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집회이다.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에서는 24일 '나를 새롭게', 25일 '교회를 새롭게', 26일 '세상을 새롭게'를 주제로 오전집회(10시~12시), 오후집회(13시 20분~16시), 저녁집회(19시 30분~21시 30분)가 차례로 이어진다.

강사는 스카이 제서니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이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리더십 저널>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하나님을 팝니다?>, <With>, <하나님의 도시> 등이 있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발견하라', '진실된 예배를 발견하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세상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미션의 범위를 발견하라', '당신의 구체적 소명을 발견하라'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이재훈 목사는 24일 저녁집회, 유기성 목사는 25일 저녁집회에서 강의한다.

특순도 풍성하다. 박진아 작가(샌드 애니메이션), 이광재(색소폰 연주), 주향한성가대, 주사랑성가대, 교역자 성가대, 김영미 권사(소프라노)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윤정희 사모,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최유강 대표(교육봉사 NGO 드림터치포울)가 강의한다. 문의: 02-3215-335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

MAIN SPEAKERS

스카이 제서니 목사 (미국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편집장)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2017.10.24(화) - 10.26(목)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선교세미나 '성경, 개혁, 선교' 개최

11월 6일 서빙고 본당 오전 10시

한국로잔위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성경, 개혁, 선교 (Reformation and the Bible for Mission)'이다. 11월 6일(월) 오전 10

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는 목회자, 교회 리더십,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선교세미나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0월 31일까지 1만원, 당일등록하면 1만 5천원이다. 학생은 5천원.

문의: 02-570-7553

홈페이지 www.onnuri.org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018 차세대 교사 모집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2018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인천에서 실시된다. 차세대 교사 690명(서빙고 159명, 양재 135명, 도곡 38명, 부천 105명, 수원 56명, 대전 59명, 남양주 41

명, 인천 38명, 강동 26명, 팽택 18명, 양지 15명)을 모집한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려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를 받은 성도여야 한다. 교사신청 방법은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인천 온누리교

회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홍보부스에서 하면 된다. 나머지 캠퍼스는 11월 중에 교사모집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면 신입교사대학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신입교사대학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우는 훈련과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 02-570-7436

/ 이소정 기자

40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 본당

40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이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40대를 위한 맞춤형도집회 '두 번째 스무 살'은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40대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건네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자리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가수 별, 뮤지컬배우 이석준, 배우 추상미 부부, 브라스통, 송솔나무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맞춤형도집회에 앞서 오는 11월 6일과 13일에는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모임이 시작된다.



2017년 11월 20일 저녁 6:50 | 온누리교회 서빙고 본당
출판: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이번 맞춤형도집회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주일통합데스크, 목회지원실에서 하면 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스무 살'을 검색한 이후 친구 추가를 하면 된다. 카카오톡으로 등록신청, 집회 안내, 공지알림, 1:1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02-3215-3214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People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만나고 싶었습니다

개그맨 조래훈의 꿈이 영글어간다



▲ KBS 개그콘서트 코너 '부담거래'에서 연기하고 있는 조래훈 형제.
▶ 조래훈 형제가 2016 더원 집회에서 MC를 맡았다(왼쪽 끝).



“당신 내 변호사 맞아요? 조래훈이라고요. 조.래.훈.”

최근 방영된 KBS 개그콘서트 '부담거래' 코너에 나오는 대사다. 이 대사를 하는 사람은 KBS 31기 공채 개그맨 조래훈(26, 여호수아공동체)이다. 재치가 넘치는 그가 개그맨이 되기까지 부모님의 이혼, 가난, 무명시절 등 수많은 고통이 있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믿어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개그맨 조래훈 형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간절하게 붙잡은 말씀이다. 비록 가난해서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이 말씀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였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조래훈 형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두 딸에게 조래훈 형제의 할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조래훈 형제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부탁을 받은 그녀들이 조래훈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꼬박 일 년을 쫓아다녔다. 그럴수록 조래훈 형제는 더 도망쳤고 교회를 완강하게 거부했었다.

“일 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더 이상 안 쫓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안 오니까 이상해서 제 발로 교회에 갔어요.”

최요한 선생님의 사랑과 신뢰

교회에 처음 간 날 조래훈 형제는 사랑에 빠

졌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따뜻했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이제 막 교회와 사랑을 시작하려던 그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는데 아버지의 부재가 큰 상처로 남았다. 가정형편도 더욱 어려워졌다. 가난이 그의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다.

마음의 상처와 가난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던 청소년 시절 든든한 버팀목을 만났다. 중학교에서 만난 최요한 선생님이다. 그가 처음으로 꿈을 가지게 된 것도 그 선생님 덕분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차례로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최요한 선생님이 저에게 마이크를 쥐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난생처음 사회를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남들 앞에 서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때부터 MC(Master of Ceremonies)를 꿈꾸기 시작했다.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소망도 생겼다. 그런데 예술고등학교에 가려면 많은 학비가 필요했다. 어머니 혼자 벌어진 돈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던 터라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었다. 교회 수련회에서 눈물을 펴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몰려왔다. 수련회 강사로 온 목사님이 그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셨다.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조래훈 형제는 이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만 있으면 최요한 선생님에게 무대에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뜨거운 열정이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회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래훈 형제를 추천했다. 그 뒤에도 최요한 선생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졌다. 조래훈 형제가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해주셨다. 입학금이 없어서 대학교 진학이 막막했을 때도 어김없이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최요한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이 조래훈 형제에게 늘 해주신 말씀이 있다.

“래훈아,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꿈을 이루고 나면 너와 같은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

선생님의 말씀이 그의 또 다른 꿈이 되었다. 최요한 선생님의 사랑과 신뢰가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주었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방황을 못 하겠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걱정 말고 절대 포기하지마”

그는 전주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일대학교 레크리에이션학과에 입학했다. MC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상경을 한 것이다. 그런데 MC가 되고 싶다고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었다.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다. 바로 개그맨이 되는 것이다. 이때 조래훈 형제가 진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해군홍보단에서 함께 복무한 개그맨 이세진이다.

조래훈 형제는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개그맨이 되기 위해 무대를 찾아다녔다. 고향 교회 목사님과 지인들에게 무대에 설 일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부탁도 했다. 그는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달려갔다.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개그맨 선배 밑에서 걸레질 하면서 개그도 배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가 MC 경험을 가장 많이 쌓은 곳은 교회다. 고향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회를 봤다. 그가 MC로서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은 온누리교회다. 2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과장님 목사님(강동 온누리교회)이셨어요. 제게 중등부 수련회 레크리에이션 사회를 봐 줄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조래훈 형제와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만났다. 그즈음 출석하는 교회를 온누리교회로 옮기면서 서빙고 중등1부 드라마팀 교사로 섬겼다. 그때부터 대학청년부 리더십 수련회, 회복사역, 미혼모 사역, 여호수아 수련회 등에서 MC 요청이 들어왔다. 다양한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MC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웃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진짜 MC는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시간에 마무리하는 훈련도 받았다. 끝내기 5분 전에만 알려주면 제시간 안에 진행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온누리교회의 프로그램이 방송국에서 일할 때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작년 7월 KBS 공채개그맨으로 채용됐다.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저를 가르쳐주던 개그맨 선배는 제 합격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조래훈 형제는 현재 개그콘서트에서 ‘부담거래’ 코너를 마치고 새 코너를 준비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꿈이 영글어가고 있다.

“하나님께 제가 개그맨이 되면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킬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얼마 전 지인이 청소년 한 명을 소개시켜줬다. 그 청소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식당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연가자가 꿈인데 돈이 없어서 레슨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조래훈 형제는 그 청소년의 멘토를 자청하고 두 팔 걷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 그 청소년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응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나도 청소년 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언어와 문화 차이는 천국에서 아름다움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갈등의 요인이었는데 천국에서는 축복의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각 나라의 족속과 언어와 방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의 차이가 변화되어 아름다움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주로 다니셨지만 언제나 이방 땅을 함께 밟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걸어서만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땅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도 품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떤 시대와 문화 속에도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한 여인이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만큼 어머니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름답고 소중한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지방에 귀신을 내어 쫓는 분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분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 지방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매우 친밀하고 자상하며 사랑스럽게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 주시면서까지 그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한번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린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막으려고 하자 방해가 아니라며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지붕이 열리고 중풍병자가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예수님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이 어떤 곳

으로 가던 중에 돌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사건이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매우 바쁘게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딸아, 네가 흉악한 귀신들린 딸로 인하여 마음이 아팠겠구나.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침묵하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거절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종류의 요청에 한 번도 침묵으로 반응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줄까요.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침묵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이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필립 안시는 저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면 그는 무신론자이다.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도 하나님의 침묵을 안타까워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간구에 대해 귀를 막으십니까?”

시편기자들의 고백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한국의 ‘숨바꼭

질’이라는 놀이가 그곳에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숨바꼭질 놀이는 숨어 있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숨으면 숨다가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는 놀이입니다.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마존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 놀이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숨지 않고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놀이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만 숨어야 합니다. 숨어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숨바꼭질 놀이의 놀라운 점은 찾은 사람이나 들린 사람이나 모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들켰으면 슬퍼해야 하는데 왜 기뻐할까요.

저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아이들이 숨으면 제가 “다 숨었니?”라고 묻고 아이들이 “네”라고 대답하면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아이들은 제가 자기들을 왜 그렇게 빨리 찾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가 숨다가 되고 제가 옷장에 숨으면서 옷장의 문을 잠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놀이가 아닙니다. 아마 아이들이 울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가 옷장에 숨어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방만 찾아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방을 찾습니다. 그러면 제가 “끼이익” 하고 옷장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제가 숨어 있는 방으로 옵니다. 그런데 역시 방만 보고 옷장 안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침을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아이들이 옷장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찾았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제가 소리를 낸 덕분에 아이들이 숨어 있는 저를 찾을 수 있었지만 제게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잘 나서, 능력이 많아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기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숨바꼭질에 숨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영역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

다. 하나님은 발견되는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계실 때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가 믿음의 길이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이 여인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에게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믿음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간절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24절).

매우 인종차별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만 사역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종차별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이방인인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순서,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넘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여인에게 거절의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무릎 꿇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간구하느냐가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오래 기도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 번이나 두 번이라고 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이가 믿음의 길이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본 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사달라는 것을 그때그때 사주면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사달라고 조르지만 하루가 지나면 다른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장난감 가게에서는 그것을 안사면 안 될 것 같이 굴지만 다른 가게로 가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을 구했다면 사줘야 합니다.

(13면에 계속)

기획_행복시리즈 1탄

올로와 크리스천의 행복

하나님 나타내는 단 한 번뿐인 인생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 행복을 찾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 같다. 살다보면 행복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재벌이나 유명 연예인 등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불행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성공과 부와 명예는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행복의 기준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 요즘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지금を楽し고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올로(YOLO)'라고 한다. 올로란 '단 한 번뿐인 인생, 현재를 즐기며 살자'라는 의미를 지닌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요즘 청년들에게 왜 올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A 자매(38세, S브릿지공동체)는 '올로'라는 말 자체가 위안이 된다고 한다. 그녀는 한 살 터울 언니와 살다가 지난해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굳이 큰 집이 필요 없지만 자신만의 여유로운 공간을 갖고 싶어 은행 대출을 받아 넓은 집을 구했다. 얼마 전에는 중고차도 한 대 구입했다. 직장도 집이 가까워서 자가용을 이용할 일은 거의 없지만 주말의 여유를 위해서 마련했다.

“그동안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나 자신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집과 차를 샀어요. 엄마는 빨리 결혼하라고 성화지만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아요. 지금의 월급으로 현재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게 마음 편해요.”

A 자매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요즘 유행하는 '올로(YOLO)'의 의미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분명 한 번뿐인 지금을 즐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올로'라는 말은 지난 2011년 미국의 힙합가수 드레이크가 발표한 노래 'The Motto'의 가사에서 나왔다.

“한 번뿐인 인생, 그게 내 좌우명이야, 올로(You only live once, that's the motto nigga, YOLO).”

또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가입을 독려하는 동영상에서 "Yolo, Man"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이 되었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신조어로 등재까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아프리카 편'에서 '올로'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배우 류준열이 홀로 아프리카 여행 중인 금발의 여성에게 혼자서 아프리카 여행하는 게 대단하다고 칭찬하자 그녀가 "올로"라고 대답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금 세계 곳곳의 여행지에서 젊은이들이나 나홀로 여행족들 사이에서 "올로"는 "헬로"나 "굿럭" 대신 쓰이는 인사말로 통하고 있다.

올로와 비슷한 뜻을 지닌 말이 있는데 '카르페디엠(현재를 즐겨라)'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여운을 줬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명문사립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개성이

20~30대 남녀에게 올로 라이프를 묻다

84.1% 긍정적



20~30대 성인남녀 830명 설문조사(자료제공: 사람인).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입시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키팅 선생이 다음의 시를 읊어주며 천편일률적인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당장 실천하라고 권면했다.

장미꽃 봉오리를 따려면 바로 지금이니
언제나 시간은 씌 없이 흐르고
오늘 이렇게 활짝 핀 꽃송이도
내일이면 시들어지고 말지더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올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20~30대 남녀 830명을 대상으로 올로 라이프에 대해 질문했는데 청년 84.1%가 '올로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로 라이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 선택)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가 60.7%로 가장 많았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 수 있어서' (55.4%), '실용적인 생각인 것 같아서' (30.7%), '열정적인 것 같아서' (23.5%), '도전정신이 있어 보여서' (20.9%)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올로 붐을 타고 소비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지금 이순간의 행복을 위하여 지갑 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소비패턴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빼서 세계여행을 간다거나, '포켓몬GO' 게임을 즐기 위해 무작정 속초로 떠난다거나, 셋집에 사는 동안이라도 나만의 개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거나, 밥값보다 훨씬 비싼 커피를 마신다거나, 피규어 같은 자신의 취향이 가득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에 상당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청년들의 소비패턴을 우려한다. 얼핏 보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와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생각하는 올로는 흥청망청과 분명 다르다.

올로를 삶의 모토로 삼는 이른바 올로족들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충동적이고 소비지향적인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지금을 후회 없이 즐기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알뜰살뜰 아껴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보다 단 한 번뿐인 지금의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더 가치 있고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이면에 감춰진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

이 시대 청년들에게 올로가 유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는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올로 라이프'를 올해의 트렌드로 꼽으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에 불안한 미래에 투자하기보다 현재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로 붐의 이면에는 희망이 사라진 청년들의 암울한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 과거 고성장·고물가·고금리 시대에는 덜 쓰고 차근차근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해서 양육할 수 있다는 희망이 눈에 보였다. 한 푼 두 푼 모으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어렵게 모아 집을 사면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은행에 착실하게 저축만 해도 이자가 붙어

올로의 참 의미 ... ‘오늘만’ 이 아니라 ‘오늘도’ 충실하게 청년세대 슬픈 자화상 보듬고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 해야

잔액이 금방 불어났다. 아끼면 잘 살 수 있는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와 달리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과거와 도저히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다. 한 푼 두 푼 모으면 이자가 붙어가는 재미가 있던 시대는 완전히 가고 물가를 감안한 현재의 예금 금리는 제로나 마이너스다. 더 큰 문제는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집값을 포함한 모든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2012년 5.8%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4%였다. 문제는 소득 증가율이 앞으로도 2% 초반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시대 청년들이 현재를 희생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 마련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풍요로운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가능할까. 희박하다는 답변이 솔직하다.

올로 현상의 원인은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다. 고건 장로(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쓴 ‘인구문제와 교회’라는 제목의 칼럼(본보 2015년 3월 8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매우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기성세대는 물질이 부족하고 사람도 적은 세상에 태어났다. 굶주림과 가난을 면해보는 것이 평생 꿈이었다. 그 대신 일감은 사방에 있었고, 사람대접은 평생 받고 살았다. 부국강병을 일궈낸 세대,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이라는 칭송이 평생 따라다녔다.

반면 2030 세대는 물질도 풍요롭고 사람도 너무 많은 세상에서 인생을 시작했다. 물질은 풍요로우나 사람대접은 최악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대에 태어났다. ... 기성세대는 모세 세대처럼 빵과 물과 가난과 불확실성 때문에 새벽기도 제단을 찾았던 세대들이다. 반면 2030 세대는 젓과 꿀과 땅은 주어졌지만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는 음란과 물질만능주의, 인본주의, 무신론 등과 싸워야 하는 세대이다.”

올로를 선호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주택시장이 다.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겠다’는 34세 이하 응답자가 2010년에는 19.9%였는데 2014년에는 29.1%로 늘어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3명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2448만원이다. 월 100만 원 씩 모아서 이 돈을 마련하려면 장장 52년이 걸린다. 25세 청년이 허리띠 졸라매서 저축하면 70대 후반이 되어야 겨우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

엮힌 데 뭇친 문제가 또 있다. 경제 저성장이 청년실업 문제를 야기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실업률이

9.2%로 조사됐다. 체감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취업 준비생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1.5%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청년들에게 취업은 사회진출의 첫 관문이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결혼과 출산, 양육을 꺼리는

만두거나, 올로 라이프를 즐기겠다며 훌쩍 세계일주를 떠나고, 한 달 일하고 하루 동안 싼 컵 쓰는 등 내일을 기대하기보다 오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올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올로가 아니라 무분별하고 계획 없는 과소비일 뿐이다. 또한 현실을 즐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기성

“우리 세대들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월세 몇 십만 원이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런데 자기 집도 아닌 셋방을 몇 백만 원 들여 꾸미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이에 대해 자녀세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막대한 미래에 투자하느니 지금 나한테 그 돈을 쓰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 나를 위해 2백만 원을 쓰는 것은 미래에 갖지 못하는 행복이에요. 지금 안 행복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 안에서 올로로 살아가기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부모세대는 내일을 살았고, 자녀세대는 오늘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올로인지를 가르쳐줘야 한다. 청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이유다.

진정한 올로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오늘이 쌓이고 또 쌓여 미래가 된다. 오늘을 의미 없이 보내면 바라는 미래도 없다. ‘현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present’는 선물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선물과 같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곧 성경적 삶이기도 하다. 크리스천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 장자권을 팔죽과 바꾼 예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크리스천의 사명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나가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 5:15-17).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목적이 이끄는 충실한 오늘을 살아야 한다. 주 안에서 올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올로이다.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처럼 올로의 이면에는 청년들의 슬픈 자화상이 숨겨져 있다.

변질된 올로를 주의하라!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올로 현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로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도 충실하게’인데 통용되고 있는 올로의 의미는 ‘오늘만 즐겨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올로를 외치면서 무작정 회사를 그

세대들이 바로 이점을 염려하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스페셜 다큐 ‘아버지의 집’에서는 집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생각의 차이를 다뤘다. 제작팀이 20~30대 자녀세대 110명과 50~60대 부모세대 134명에게 ‘미래의 안정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현재를 잘 사는 것이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자녀세대 66%, 부모세대 36%가 ‘그렇다’고 답했다. 올로에 대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생각이 극명하게 달랐다. 다큐에 나온 한 아버지는 올로를 즐기는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선교열정은 식지 않는다

김한나, 박영희 은퇴선교사의 두 번째 꿈

지난달 28일, 김한나 선교사와 박영희 선교사가 은퇴했다. 두 선교사는 닳은 점이 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선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김한나 선교사는 1993년 선교사로 헌신했고, 박영희 선교사는 선교선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선교열정은 은퇴했다고 식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두 사람의 또 다른 선교행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한나, 박영희 선교사의 두 번째 꿈을 소개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그들이 선교사로 헌신한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로 살아온 세월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했다. 김한나 선교사는 “지금도 선교지가 그림과 다시 가고 싶다”고 했고, 박영희 선교사는 “선교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단어”라고 고백했다. 두 사람의 선교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교지에서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믿었던 스태프에게 배신당하고, 사고로 남편마저 잃었다. 그 아픈 일들을 견디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선교사로 살아온 삶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다며 미소를 보였다. 정말 선교사가 안됐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다.

김한나 선교사 부부와 중국선교

김한나 선교사는 중국선교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중국 D시에 선교베이스를 구축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김 선교사는 1993년 중국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당시 그녀의 나이 47살이었다. 한국에서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사업가의 아내로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던 그녀였다. 그녀의 남편은 박모세 선교사다. 박 선교사가 사업을 하면서 1988년부터 중국을 오갔는데 그 일이 두 사람이 중국선교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때는 한국과 중국이 수교조차 맺지 않았을 때다.

“남편이 홍콩에서 배를 타고 중국의 광저우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해골로 보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대요.”

그 일을 계기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들 부부는 사회적 지위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났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중국 D지역이었다. D지역은 북한과도 거리가 멀지 않아 중국인, 북한주민,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음악을 전공 했으니까 일단 음악학원을 차려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의 선교는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세례

를 베푸는 것만이 아니었다. 음악학원을 필두로 선교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음악학원에 이어서 어린이집, 한국문화원, 카페, 빵집도 차렸다. 선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카페와 빵집을 차렸는데 “선교하러가서 장사를 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선교와 아무런 상관 없이 보이는 활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김 선교사 부부가 구축한 선교베이스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수많은 현지인들도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특히 선교베이스가 있던 D지역은 북한 국경과 가까운 탓에 탈북자들을 섬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1990년대 말 탈북자들이 급증했을 때 선교베이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한인교회 탈북자들이 찾아오면 우리 선교베이스로 보냈어요. 먹이고, 재우고,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탈북민들을 돌봤어요.”

2000년 1월 1일 중국 B시에 있는 교회에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어떻게 도울지 논의하러 다녀오는 길이었다. 김 선교사 부부가 타고 있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다.

“한참을 눈길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누가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러 갔는데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오더니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제게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선교베이스를 두고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소천한 박모세 선교사의 빈자리는 그동안 그들 부부가 구축한 선교베이스에서 훈련받은 중국인, 조선족, 탈북민,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채웠다. 김 선교사는 2013년 후임 선교사에게 사역을 넘기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김 선교사 부부가 세운 한국문화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한국문화원과 연결된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학원으로 승격됐다.

김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는 은퇴했지만 자신의 선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선교사들은 말 못하는 아픔이 참 많아요. 저는 앞으로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의 아픔을 돌보는 두 번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박영희 선교사 부부의 눈물겨운 선교사

박영희 선교사는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다. 1978년 28살 젊은 아가씨가 혈혈단신으로 배



중국에서 선교한 김한나 선교사(좌)와 홍콩에서 선교한 박영희 선교사(우).



를 타고 전 세계를 떠돌았다. 선교가 너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O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선을 타고 4년 동안 동남아, 중동, 서남아시아, 파키스탄 등 안 가본 곳이 없었다.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어요. 정말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더라고요. 영국에서 선교신학을 공부하다가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어요.”

박 선교사는 선교선에서 만난 남편 아리문츠 선교사(네덜란드)와 결혼했다. 남편과 함께 온누리교회에 다니면서 다시 한 번 선교에 헌신했다.

그들 부부는 중국 내륙에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푸른 눈의 외국인 선교사가 활동을 하기에는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비교적 외국인이 활동하기 좋은 홍콩을 선교지로 택했다. 박 선교사 부부는 홍콩에서 예배와 집회에 집중했다. ‘High Rock Christian Center’라는 크리스천 센터의 운영도 맡았다.

“High Rock Christian Center는 ‘스튜어드’라는 선교회에서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이곳을 살린다는 것은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High Rock Christian Center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정착금을 모두 털어서 High Rock Christian Center를 수리하고, 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예배를 계속 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가 시작됐다. High Rock Christian Center의 스태프들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다. 주민들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와 중보기도가 현지인으로 자리매김이 됐다는 것은 모든 사역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뻐다.

“High Rock Christian Center가 있던 곳은 영적으로 피폐한 곳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도 있고, 도박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예배에 나오고 회개하면서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또 박 선교사 부부는 커피숍을 만들어 젊은 이들과 교제하며 매주 집회를 열었다. 그들의 선교사역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무렵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High Rock Christian Center의 스태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내 몸 같이 섬기던 3명의 스태프들이 센터를 떠났고, High Rock Christian Center의 기도실이 폐쇄됐다. 박 선교사 부부도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남편 아리문츠 선교사가 뇌종양 4기 판정을 받았다.

“뇌종양이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지에서의 그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남편은 1년 4개월을 투병하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박영희 선교사는 남편을 보내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중에 선교사 훈련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사 훈련을 돕는 일과 시안열방예배를 섬기고 있다. 박 선교사 부부가 헌신했던 홍콩에서는 그들이 양육한 현지인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섬기고 있다.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 도전이 되고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사역은 더 의미 있고 주님께서 주신 확실한 삶의 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훈 목사의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을 찾아서 3

개혁을 개혁하다

청교도 정신으로 다시 우뚝 서다

종교개혁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루터와 독일을 떠올린다. 이에 비해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고, 미국에서 성장한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과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기훈 목사가 영국 개혁주의 신앙의 흔적을 찾아 가는 글을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헨리 8세에 의해 시작된 영국의 종교개혁은 영국 국교회(성공회)를 낳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녹스의 주도로 장로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진정한 교회개혁은 1560년 이후 청교도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 신앙을 요구하는 메리 여왕은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이유로 그녀는 ‘피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녀가 서거한(1558년) 후에 핍박을 피해 제네바,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등지로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대거 귀국했다. 그들에 의해 당시 유럽 대륙에서 식어가던 개혁의 열기가 자연스럽게 영국으로 옮겨졌다.

청교도(Puritans)라는 말은 ‘순수하다(purify)’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청교도운동은 성공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톨릭교회의 요소들을 칼빈의 사상을 따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청교도라는 이름은 국교회 측에서 비타협적인 개신교도들을 경멸하는 의도로 붙여준 것이었다. 이것은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청교도는 성공회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부류와 아예 교회 밖에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이루려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들이 회중교회의 원조가 되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모델 삼아 분리 독립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영국 교회개혁의 최고 걸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헨리 8세 개혁 이후 캐서린에게서 낳은 딸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로 영국의 가톨릭교회를 복구시키려 노력했다. 앤에게서 낳은 딸 엘리자베스 여왕은 중도 입장을 취했는데 청교도운동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 왕의 성향에 따라 청교도 교회는 보호를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다. 메리 여왕의 아들인 제임스 1세는 그때까지 사용해 오던 제네바 성경을 왕권에 저항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성경으로 인식하고 불쾌하게 여겨 새로운 번역을 시



영국 베드포드에 있는 존 번연의 동상.

도했는데 그것이 ‘King James 성경’이다. 이 성경은 영문학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 영어번역본 성경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청교도에 대한 가톨릭과 성공회의 핍박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그래서 개혁신앙을 지키려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으로 망명했다. 1620년 9월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모인 102명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 ‘May Flower호’를 타고 출항했다. 그해 12월 26일 신대륙 미국 동부 플리머스(Plymouth)에 도착하였다. 역사는 그들을 ‘필그림 파더(Pilgrim Fathers, 순례의 조상들)’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각처로 흩어져있던 제자들에게 의해 자연스레 교회가 확장되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622년 8월 24일 청교도 추방령이 내려져 2천여 명의 신앙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일부는 일지리를 빼앗기는 등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가톨릭 교도를 왕비로 맞이한 찰스 1세(제임스 1세의 아들)는 가톨릭교회를 강요하기 위해 청교도 교회는 물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까지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고 했다. 결국 1642년부터 6년 동안 가톨릭을 지향하는 왕당파군과 청교도를 대변하는 의회군 사이에 시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은 의회군의 승리로 끝났고 찰스 1세는 1649년 처형되었다.

의회군을 승리로 이끈 크롬웰은 그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군사독재 형식의 통치를 했다. 이 기간 동안 청교도들의 활동이 왕성했다. 청교도의 리더 중 한 사람인 존 오웬이 옥스퍼드대학의 부총장으로 발탁되었는데 많은 저술활동을 통해서 청교도 정신을 체계화시켰다.

영국 교회개혁의 최고 걸작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다. 1643년 7월부터 무려 5년 7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서 칼빈주의 신학자, 목사, 귀족, 하원의원,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대표 등 109명이 1,163회의 연구 모임을 가진 끝에 개혁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33가지로 요약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이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써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는 물론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의 장로교회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가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존 번연, 예수님의 생애와 판박이

찰스 2세 등극으로 정치적 상황이 바뀌자 청교도들은 다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베드포드(Bedford)에서 유명한 존 번연이 등장한다. 청교도의 많은 리더들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대학 출신인 반면 존 번연은 가난한 땀장이 집안에서 태어난 덕에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인생 공부를 했고 닥치는 대로 많은 서적을 읽었다. 학교에서 얻지 못한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존 번연은 16살에 의회군에 입대해서 3년 동안 찰스 1세에 대항하는 시민전쟁을 치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이 시기 성공회는 국교회로서의 자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국교회 밖에서의 설교나 집회를 금지시켰다. 존 번연이 32살 때인 1660년 11월 성공회 소속이 아니면서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가 출옥할 때 당국자들은 절대로 설교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 베드로나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평신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 결과 다시 투옥되어 12년여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다. 1672년 3월 석방된 존 번연은 정치적인 배려로 베드포드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찰스 2세

의 변심으로 1673년부터 다시 4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 와중에 그는 집필에 전념해 60여 권의 책을 써서 청교도 신앙을 알리려고 했다. 그의 대표적인 책 중 하나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고,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출판된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이다. 존 번연은 감옥에서 이 책을 집필했고, 출옥한지 1년 만에 정식 출판을 했다. 이것은 12년 감옥 생활이 낳아준 하나님의 걸작이었다. 존 번연에게서 13년이라는 길고의 세월을 믿음으로 인내한 끝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했던 요셉의 영성이 느껴진다.

베드포드는 런던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다. 존 번연의 도시이다. 존 번연이 평생 이 아담한 도시에서 살아서인지 몰라도 골목마다 그의 영성이 배어 있는 듯하다. 주민들도 방문자들을 친절하게 반겨준다. 베드포드 여행 안내소를 찾아가면 존 번연의 흔적을 따라갈 수 있는 지도를 얻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베드포드 남쪽 엘스토(Elstow)에 있는 존 번연의 생가를 찾아가자. 그리고 <천로역정>에 등장하는 성 요한 목사관에서부터 출발해서 존 번연의 세례터, 존 번연이 투옥되었던 감옥(Town Gaol), 존 번연의 동상, 그가 목회한 교회, 그가 두 번째 투옥되었고 <천로역정>을 쓴 감옥, 존 번연의 집, 존 번연 박물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다 보면 그의 영성이 저절로 몸과 마음에 배는 느낌이 든다.

존 번연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과 정치적 핍박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지방으로 설교를 하러 다니다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셨던 예수님의 생애와 판박이다. 그의 삶이 곧 청교도 영성의 진수라고 보는 것이 틀림없다. 영국에서 설교와 교회 개혁의 자유는 1688년 명예혁명(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혁명이라서 이름 붙여짐) 이후부터 가능했다. 청교도들은 성경적 예배와 주일성수를 강조했으며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영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나 도박, 음주, 사치, 낭비를 금지하고 근검절약해서 사회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리처드 박스터와 존 오웬에 의해 정리된 청교도 신학사상은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스필전을 비롯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J.I. 패커 목사에게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이어졌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청교도 신앙과 영성으로부터 개혁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부, 일대일 사역 본부장)

특별기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II)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 차별 철폐운동과 그 영향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동등권을 요구했지만, 1990년 초 이래로 ‘제3의 물결’에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 기능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들의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였다.

사회적 성으로 구성되는 왜곡된 사회 지향

21세기에 들어와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전개하는 ‘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 구별을 철폐하는 것이다. 이들은 ‘차별’이라는 용어를 빌려와 ‘성 주류화 운동’을 ‘성차별 철폐운동’으로 부쳤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남녀 성차별을 방지하자는 운동으로 알지만 그 내용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구별 자체를 차별로 보고 이를 철폐하자는 이데올로기 운동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고, 모든 남녀의 성적 동일성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젠더 이데올로기는 유사종교(eine Quasi-Religion)로서 우리 사회의 가정과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유사종교란 종교가 아니나 종교가 지니는 성격, 독선적 타당성 주장, 절대성 주장, 총체성 기대, 인간 삶의 종교적 의식화(출생례, 청년례, 혼인례, 장례)를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다. 그 예는 모택동주의, 국가사회주의, 일본 군국주의 등 전체주의 운동, 현대스포츠 등이 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의 성 차별 철폐 운동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일부일체제’라는 결혼제도에 대하여 레즈비언적(Lesbian), 게이적(Gay), 양성애적(Bisexual), 성전환적(Transgender), 퀴어적(Queer), 혼음적 형태가 ‘성적 다양성’이라는 표현과 명목을 가지고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활공동체로 왜곡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성차별 철폐운동을 유사종교라고 규정하는 것은 예전에는 숨어 있었으나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coming out) ‘성적 지향’ 조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 가이드라인에 슬그머니 넣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 할 뿐 아니라 이성애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퀴어축제를 개최하면서 동성애를 전 국민에게 파급시키려는 운동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성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 속에는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이 숨어 있다.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性) 사이에 존재하는 창



미국은 지난 2015년 6월 26일 연방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선언하였다.

조의 이원적 상호성과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로서 갖는 의무와 역할을 완전히 폐지하고 무효화시키려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성(social sex)으로 구성되는 왜곡된 인위적인 세계관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의 다양성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추구한다.

이 운동은 거대한 호칭, 젠더(gender)의 일물성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창조질서로 지어진 생물학적 성의 모든 차이들을 해체하고자 시도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성으로 구성되는 세계관에 기초한 인위적인 성사회로 바꾸고자 한다. 심지어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선구자적인 도구로서 ‘중성적인 언어’(지구상의 모든 어린이에게 친숙한 언어인 아빠, 엄마를 인위적인 조립어 양친 1, 양친 2로 대체)를 만들고자 한다.

예컨대 스웨덴의 두 유치원(Nicolaigarden and Egalia gender-neutral preschools)은 성 개념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교육을 지향해 왔다. 두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성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교육한다. 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을 타고난 성에 따라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특정 행동을 금지하지 않도록 주의 기울인다.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여아(girl)’와 ‘남아(boy)’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대신 이름이나 성-중립적인 대명사 ‘hen’을 사용하여 부르도록 했다.

스웨덴에서는 1988년 수정헌법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성-고정관념화에서 벗어나도록 교육한다. 이에 더해 Egalia의 교육방침은 “아이

들에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여 성평등 관념을 고취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중립적 교육방침은 아동기에 일종의 주입식 세뇌(brainwash) 효과를 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웨덴의 심리학자이며 저술가인 에버하드(David Eberhard)는 다음 같이 비판했다.

“이러한 교육(소년들과 소녀들을 hen이라고 부르며 하는 것)은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아동을 지적으로 부정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부정하는 일종의 종교적 이단종파이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 작동하는 일종의 세뇌와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다니게 되면 이전에 일종의 종파를 따라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남자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boy’나 ‘girl’을 구분하여 부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필자는 에버하드의 성-중립적 교육 비판이 정당하다고 본다.

‘음란전염병’ 퍼뜨리는 성혁명의 전략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의 전략의 일환으로 학교, 직장, 가정, 교회에 이르기까지 음란물(pornography)을 전염병(epidemics)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 혁명을 추진하는 활동 엔진으로써 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교도 국가였던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아래서 2015년 6월 26일 연방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헌으로 선언되어 21번째 동성애 허용국가가 되었고, (동성애)혐오범죄법(Hate Crime Law)이 시행되어 세속국가가 되었다.

현재 뉴욕 타임스의 책리뷰 편집인인 미국 여류 작가 파메라 폴(Pamela Paul)은 2010년 저서에서 다음같이 음란물의 전염병적인 범람에 관하여 썼다.

“오늘날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8억 개의 음란 비디오(video)와 디지털 비디오디스크(DVD)를 빌려보고 있으며 빌린 영화의 1/5이 음란물이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DC)에서 2014년 7월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총인구의 3퍼센트가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인식하고 있다. 퀴어들은 이 현상을 “연예오락물을 통해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게이와 레즈비언이 노출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 일상의 삶 속으로 젖어들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텔레비전 방송 황금시간대 많은 프로그램들에 동성애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수십 년 전 음란물은 미디어, 비디오, 성인 영화에 제한되어 오로지 성인들에 의해 소모되었다. 그러나 디지털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포르노 비디오, 섹스 대화, 웹캠 섹스(webcam sex), 전화 섹스, 음란 컴퓨터 게임 등으로 포르노물을 나르고 있다. 오늘날 포르노물 소비자의 1/3은 여성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모든 여성의 42퍼센트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포르노 웹사이트를 보고, 일 천 만 여성이 규칙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음란물은 일상적이 되었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음란물을 보는 친구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에 와서 부모와 보호자들이 더 이상 어린이들을 포르노물에서 보호할 수 없다. 수십 년 전부터 음란물은 억압(suppression)에서 강박(obsession)으로 변했다. 50년 전에는 입술 키스는 스크린에서만 보였으나 오늘날 우리들은 성적으로 시청자들을 자극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닌 성행위의 영상으로 폭격을 맞고 있다. 이러한 포르노물 범람이 모든 영화관에서 공적으로, 컴퓨터 스크린에서 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도착(倒錯, perversion)은 오늘날 소동과 고모라처럼 현대인의 매일 행위가 되고 있다. 음란물이 모든 사회, 모든 계층, 직업, 모든 연령층을 흠뻑 적시고 있다.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우리 한국사회는 이러한 미국사회의 포르노물 홍수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늘날 인터넷 취급에 기민한 청소년들은 무선(無線)으로 어디서나 언제나 접근되는 너무나 낮 뜨거운 포르노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도착된 성 포르노의 폭격을 받고 있다.

2016년 6월 10일 독일 튀빙엔대 은퇴교수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페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가 한국을 방문하여 기독교학술원 제10회 해외석학 초청강연을 하였다. 그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라(Widersteht gegen Gender-Ideologie)’는 제목의 강연에서 오늘날 구미(歐美)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그의 강연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하여 사상적으로 비판한 점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운동을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사상적 관점에서 보다 깊이 조명해 주었다.

바이어하우스에 의하면 성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1789년 프랑스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과 더불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제3의 세계사적인 혁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혁명이었고, 볼셰비키 혁명이 사회적 경제체제에 대한 혁명이었다면, 성차별 철폐운동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性)의 질서, 결혼, 가정이라는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문화인류학적 혁명(cultural anthropological revolution)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인간에게 두 가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근본적인 창조질서로 주신 하나님 창조의 법을 부정하는 반신론적이며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젠더주의(Genderismus, genderism)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사탄적인 원천을 지니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지금까지의 유럽의 계몽주의가 세계 문명에 가져온 고유한 중심개념인 ‘자유’ 개념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진리와 책임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자유의 개념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왜곡된 자유의 이름으로 책임과 의무를 파기하거나 역기능화시키고 있다.

동성애가 법으로 합법화된 일부 사회에서는 동성애(homosexuality)와 양성애(bisexuality)를 거부하는 이성애(異性愛, heterosexuality)자들이 사회나 언론으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움 때문에 차별한다’는 ‘호모포비아(homophobia, 동성애 혐오자)’로 지탄 받거나 정신 이상자로 취급 받는 상황이 되었다.

프랑스, 볼셰비키 혁명 이후 인류학적 혁명

성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한

인류사회를 독재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21일 추기경단 전체 모임에서 교황 베네딕트 16세도 젠더 이데올로기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비진리성과 그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류학적인 혁명’을 경고하였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은 인간 자신, 스스로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인되는 그곳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독일의 세계적인 사회철학자 하버마스

하고 있고, 그것을 관찰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 외에도 다양한 성들이 있음과 모든 성적 성향들(동성애, 양성애, 혼합성애, 이성애, 트랜스젠더 등)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자가 자기 고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고, 각자가 자기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성적 제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의 한계성을 거부하는 인간 자율성의 주장이다.

인간의 성적 제한성이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남자나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피조적 제한성을 거부하는 것이요, 인간의 천부적 자연성에 저항하는 것이다.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자들은 동시에 예부터 전승된 덕성, 도덕, 정절(貞節)과 같은 숭고한 가치 개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 내용들(전통 거부, 해방, 자유, 쾌락, 난잡 등)로 포스트모던 문화를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의 인류 문화의 보편적 개념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이들은 성평등(sex-equality)과 무차별(non-discrimination)이라는 깃발 아래 전통적인 일부일체제(monogamy)를 무너뜨리고, 쾌락주의(hedonism)와 성적 난잡(sexual promiscuity)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이성애(異性愛)(heterosexuality)자들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이성애자들이 벌금 내지는 형을 살도록 역차별을 시도하며 동성애 독재를 성 정치로 펼치고 있다.

무규범을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앉아 있는,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불법한 자(anthropos tees anomias)’를 보았다. 성경적인 맥락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앞으로 도래할 적그리스도를 미리 주목하고 있었다.

성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Gender Mainstreaming)은 하나의 이데올로기 운동으로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양성문화를 제거하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라는 동성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성문화 혁명운동이다. 이 운동은 20세기 초중반기에 있었던 다른 현대적 이데올로기 운동 마르크스주의, 모택동주의, 스탈린주의, 파시즘, 나치주의와 군국주의 등의 전체주의(totalitarianism)와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에 의해 창설된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와 같이 총체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주고 있다.

성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이 갖는 적그리스도의 길이란 전통적인 규범을 총체적으로 거부하고, 가치와 규범의 혼돈과 혼란을 초래하는 무규범(Anomie)의 상태를 말한다.

(계속)



“ 젠더 이데올로기는 역사와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문화의 가치판단의 기반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다 ”

성혁명 프로그램이다. 바이어하우스가 지적한 바같이 성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두 번에 걸쳐 선행된 거대한 혁명들 즉, 정치적인 신분제를 전복한 프랑스 대혁명(1789)과 경제적 계급제를 전복시킨 볼셰비키 혁명(1917) 이후 1968년에 일어난 세 번째 세사적인 문화인류학적 혁명이다.

성차별 철폐운동(젠더 주류화 운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주권에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Genderismus)는 무신론적이며 반신론적일 뿐 아니라 교황 프란치스코가 강조했듯이 사탄적인 근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 운동은 기독교세계관을 파괴하고 있다. 말하자면 역사와 인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류문화의 가치판단의 기반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인류사회의 기본적인 인류문화학적인 생물학적 질서를 전복시키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성을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성질서로

(Jurgen Habermas)는 서구 모더니즘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양심, 인권,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기초는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자유와 연대적 공존, 자율적 삶의 영위와 해방, 개인적 양심도덕, 인권, 민주주의, 평등한 보편주의는 바로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의 직접적인 유산이라고 분석했다.

프랑크푸르트학과 출신인 비판사회학자 하버마스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비판하고, 모더니즘이 가져온 정의, 사랑, 평등의 보편주의의 가치성을 인정하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전통적인 사회관습의 해체

젠더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든 분야에서 ‘성’의 절대 동일성을 요구

꼭 봐야 할 영화 '루터(Luther)'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루터의 종교개혁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올 한해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와 가치가 중

요하다.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 술하게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10월 18일 개봉한 영화 '루터(Luther)'가 그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소해 줄 수 있다.

영화 '루터'는 종교개혁의 의미와 가치를 누구나 알기 쉽게 영상으로 그렸다. 루터가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과 개봉 일자를 맞춰서 그 의미까지 더했다. 이 영화에서는 개신교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신학자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가톨릭 성직자로 임명된 직후부터 독일어 성서를 출간하는 시점까지의 행적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 개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영화가 제작된 것은 한참 전이다. 2003년 독일과 미국의 영화사가 합작으로 만들었다.

영화 '루터'의 배경은 16세기 유럽이다. 당시 가톨릭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민중들에게 불에서 고통 받는 사람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늘 밤 주님의

대변자이신 교황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 바로 지옥 불에서 너희를 구할 특별 면죄부"라고 말했다. 또 연개보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누구나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민중들을 유혹했다. 당시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던 민중들은 면죄부를 사는데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과 경외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루터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부가 되었다. 수도원장의 서신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갔다가 타락한 교회와 마주하게 된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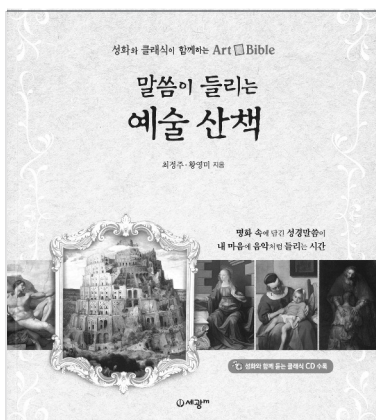
루터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다. 마인츠의 대주교가

로마로 반박문을 보내고, 혼란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로마 교황과 독일 정부로부터 반박문을 철회할 것을 강요받지만 거절한다. 아우크스부르크로 소환된 루터는 교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은 성유물이나 면죄부에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있다"고 다시 한 번 면죄부 판매와 가톨릭의 타락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성경(sola scriptura)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내 굽히지 않은 루터는 이단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목숨까지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나의 양심을 철회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수많은 군중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루터는 사제 이상만 읽을 수 있도록 허락된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다.

종교개혁 이후 수많은 신학자들이 "개인의 신앙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화 '루터'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날마다 개혁되고 있는지를 말이다.

신간 소개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최정주, 황영미 저 | 세광마스터피스 |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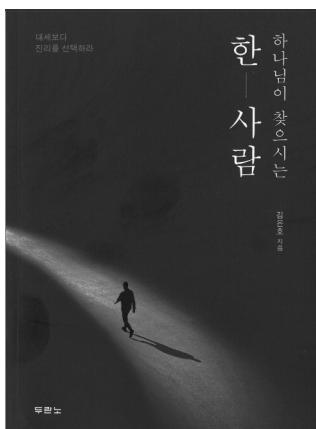
성경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 화가들 역시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그리기도 했다. 그렇게 그려진 작품을 '성화(聖畵)'라고 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화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종교화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성화를 보면서 당시

예술 산책하실래요?

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시공간을 뛰어넘어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성화를 더욱 생생하고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최정주와 황영미의 저서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을 읽는 것이다. 이 책은 성화를 감상하면서 함께 들으면 좋은 클래식도 소개하고 있다. 저자들은 성화와 어울리는 클래식을 함께 감상하면 감동이 배가 된다고 자신한다. 클래식이 담긴 CD가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성화와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성경구절이 쓰여 있고, 그림과 화가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도 담겨있다. 시대적 배경, 화가의 작업방식, 그림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 등도 소개하고 있다. 왜 그 성화는 그 음악과 함께 들어야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다. 그림의 배경이 되는 성경구절을 묵상하면서 QT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깊어가는 가을,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술 산책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김은호 저 | 두란노 | 181000원

성경에는 아담, 르우벤, 모세, 가룻 유다, 다윗, 사울 등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졌다. 우리가 마찬가지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물음에 대해 김은호 목사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한 15가지 영적 훈련을 소개하고 있다. '경외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우상을 멀리하는

사람',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 등 15가지 인물상도 소개한다.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거나 멀리해야 할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소개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지난 15일 올네이션스 예배에서 8개 외국어 예배공동체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

온 누리와 함께 드린 예배

2017 올네이션스 예배 8개 외국어 공동체 참여

지난 주일(1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온 누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국제부와 온누리M미션이 개최한 '2017 올네이션스 예배(All Nations Worship)'가 바로 그것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네팔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등 총 8개 외국어 예배공동체가 한자리

에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올네이션스 예배는 찬양, 연합 콰이어 특순, 각 예배 소개 동영상 시청,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교제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은 모든 족속을 품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라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

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비전을 지켜 달라"고 격려했다. 스티브자 목사(영어예배)는 "예배를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했고, 주주 성도(중국어예배)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분당B공동체 '새로운 만남의 밤'

전도대상자 24명 참석 ... "교회에 또 오고 싶다"

분당B공동체가 지난 14일 양재 화평홀에서 '새로운 만남의 밤'을 주제로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전도대상자 24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박선재 집사의 기타 연주와 서울클라리넷이카 데미 학생들의 공연이 있었고, 2부에서는 양재 목요예배 찬양팀 '위십하우스' 연주, 이정환 목사의 말씀,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이 진행됐다.

이정환 목사(분당B공동체 담임)는 "인생이라는 차의 주인이 바뀌면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면서 전도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날 전도집회에 참석한 김기봉 어르신은 "목사님 말씀이 마음을 울렸다"면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교회에 또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양지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11월 12일 오후 1시 45분 본당

양지 온누리교회가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를 개최한다. 11월 12일 오후 1시 45분 양지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이번 전도집회에는 재즈보컬리스트 김형미, 이무송, 노사연 부부가 출연한다. 복음을 전

하고 싶은 가족, 직장동료, 이웃들을 초대하면 된다.

지난해 열린 행복드림콘서트에는 양지 온누리교회 인근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CCF 세미나 개최 25일 양재 화평홀

CCF(Christian CEO Forum) 세미나가 '한국 이스라엘 협력 사업과 기회'를 주제로 10월 25일(수) 저녁 6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하임 호센 대사와 사이파일러 상무관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회비는 없다. 문의: 02-570-7094

성령수련회 68기 모집

68기 성령수련회가 11월 11일(토)부터 12일(주일)까지 1박2일 동안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성령수련회는 성령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타 교회 교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8기 성령수련회에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의 사역', '성령에 대한 예언과 성취', '성령과 영적전쟁' 등을 주제로 강의와 기도회가 이어진다. 강의는 박성은 목사가 한다. 문의: 010-7120-5221 010-8955-3610

청년 사랑세미나 '사랑을 배우다'

11월 4일 오후 1시 양재 기쁨홀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이 무엇일까? 요즘 크리스천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 하면 안 해서 문제고, 하면 어려워져서 문제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하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청년 사랑세미나 '사랑을 배우다'를 개최한다. 11월 4일 오후 1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청년 사랑세미나에서는 순결, 남자와 여자의 건강한 정체성, 가정, 결혼 준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가수 강균성 '거룩하고 행복한 연애', 장경철 교수(서울여대 기독교학) '남자의 자격', 김숙경 간사 '여자의 자격', 이요셉 작가(〈결혼을 배우다〉저자) '사랑을 배우다', 김승수 목사 '하나님의 꿈, 가정'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5천원.

문의: 02-3215-3759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

차세대,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차세대사역본부가 11월부터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를 시작한다.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누리홀과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평일에만 진행된다.

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6일에는

양재 사랑홀에서 '수능은종일기도회'가 진행된다. 수능은종일기도회는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기도회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문의: 02-3215-3523

2017 엔젤트리 사연접수 (Angel Tree)

2017 엔젤트리 사연 접수가 한창이다. 엔젤트리는 사회선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다. 엔젤트리 사연 접수는 10월 28일까지 받는다. 서빙고, 양재, 수원, 평택, 인천, 양지 온누리교회 각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관, 미자

립교회, 개인 등이 그 대상이다. 서빙고와 양재는 소속 공동체 다락방이나 사회선교부, 수원, 평택, 인천, 양지는 다락방이나 목회지원실에서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11월 말에 따뜻한 선물이 전해질 예정이다.

문의: 02-3215-3434

온누리유스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오디션

온누리유스오케스트라(OYO, Onnuri Youth Orchestra)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현악기와 관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소속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디션은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11시 양재 하용조기념홀 205

호에서 진행된다. 자유곡 한 곡을 준비해오면 된다. 연습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오디션 장소에서 한다.

올해로 창립 10주년 된 온누리유스오케스트라는 온누리교회 중고등부예배와 전도대상자를 위한 음악회 등지에서 연주하고 있다.

문의: 010-8777-0584

예배학교 서빙고 2기 참가자 모집

예배와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예배학교 서빙고 2기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예배학교 서빙고 2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주일 오후 1시30분 서빙고 근린공원에 있는 온누리기독교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예배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예배 순서의 의미'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문의: 010-7157-0203

장로칼럼

저 많은 애들을 누가 가르쳤을까?



김준홍 장로
(장애인사역본부 담당)

사랑채버오케스트라(이하 사랑채버)가 온누리교회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을 때였다. 사랑채버를 이끌어 온 손인경 단장이 고백한 간증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손 단장은 1999년 4월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독주회 마지막 앙코르 공연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보육시설인 부산 소년의 집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저 많은 애들을 대체 누가 가르쳤을까?” 이 궁금증이 손 단장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재능은 있으나 가르쳐 줄 선생님과 악기 등의 지원이 없어서 음악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한 번 가르쳐 보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18년 전 ‘장애인음악교실’이라는 이름으로 5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시작한 것이 지금의 사랑채버다.

지난 10월 10일 저녁, 국내외 전문 음악인들만 설 수 있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사랑채버 희망콘서트가 열렸다. 공연이 끝나고 난 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칭찬과 함께 가장 많이 물어 본 말이 “그 많은 애들을 대체 누가 가르쳤어요?”였다. 18년 전 손 단장이 마음속으로 물었던 질문을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다.

나는 물론 “손 단장과 선생님들과 어머니들이 그동안 헌신적으로 사랑채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아주셨어요”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채버의 최고의 감독자이자 영적 연출자”라는 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나는 심었고 아불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

선생님들은 심었고, 어머니들은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채버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셨다. 이번 사랑채버 콘서트에서는 새로운 출연진들이 세워졌다. 처음으로 12명의 아버지들이 공연에 참여했다. 풍성한 은혜와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 어느 아버지는 “자녀 때문에 예술의전당 무대에 서보게 되었다”며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랑채버를 또 다른 모습으로 이끄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난 2000년 4월 장애인주일을 맞아 사랑채버가 처음 주일예배 특순을 했을 때가 생각난다. 모든 것이 서투르고 음정도 불안한 사랑채버의 특순(곡명: 좋으신 하나님)이 끝나고 하용조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 주셨다. 그때 세 가지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셨다.

“앞으로 사랑채버가 예술의전당에서도 연주하고, 세계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주하게 되며, 평양에 가서도 연주하게 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마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인 사라가 피식 웃은 것 같이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니 두 가지는 이미 하 목사님의 선포대로 이루어졌고, 평양에서의 공연만 남아있다. 요즘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평양 공연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고, 작은 선교사로 부름 받은 사랑채버 단원들과 교사들과 부모들이 함께 사랑의 삼각편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을 기도하고 응원한다.

복지칼럼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백혁 센터장
(청파노인복지센터)

화려하지는 않지만 예스러움이 있는 서울역 뒤편 서계동에 어르신들이 꾸준히 오가는 작은 시설이 있다. 그곳에 가면 6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그 시설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청파노인복지센터다.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매월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있다. 교육은 물론 물리치료와 식사,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스스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배운 실력이 외부 페스티벌이나 경진대회에 나가 수상을 할 정도로 출중하다. 돋보기를 들고 한 자씩 읽어가며 배움의 열을 가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의 마음이 환희로 물든다. 청파노인복지센터는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 직원들과 어르신들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역시 크기보다는 정성이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진심에서 묻어나는 칭찬을 들으면 몽글해진다.

“센터에 나오면서 우울증이 없어졌어. 여기가 없었으면 치매가 왔을지도 몰라. 동네 친구들을 데려오면 그 친구도 ‘참 좋은 곳을 이제야 알았네’라고 그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실천하기에는 너무 바쁜 사람들이 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은 아무리 바빠도 이웃들을 돕고 있다. 말벗 활동과 끼니마다 도시락과 반찬을 배달하고, 손이 부족한 식당일에도 흔쾌히 정을 보낸다. 그 뿐만이 아니

다. 영어공부 동아리를 개설한 어르신도 있다. 다음은 영어공부 동아리를 개설한 이규찬 어르신

의 간증이다.
“2015년 1월 즈음, 지인의 소개로 청파노인복지센터 영어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작은 학교를 연상케 했죠. 맛있는 중식도 제공해주고 가을 소풍도 가고요. 매일매일 센터에 나와 어울리고 배우고 영어공부하는 게 즐거웠어요. 1년이 지난 2016년 5월, 영어 선생님께서 저에게 ‘영어 왕초보반’을 추진 중이니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이미 사무실에 흔쾌히 승낙도 받으셨다면서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어르신들도 기초부터 공부하는 것 자체를 환영해 주셨어요.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들은 자신감도 생기고, 발음도 좋아지고, 짧은 영어문장을 읽고 해석하시면서 흡족해 하십니다. 우리끼리 농담도 하지요. 올해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입학준비를 하자면서요. 웃겼죠? 하하하. 또 내년부터는 수업 중에 우리말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도 했답니다. 영어로 짧은 대화를 시도해보면서 안 되면 눈짓과 몸짓까지 이용해서라도 의사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영어마을에 견학을 가서 외국인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라고 했지요. 또 웃겼나요? 하하하. 우리는 이렇게 활기차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모두가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즐거움을 청파노인복지센터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멋진 삶을 꾸며보라고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파노인복지센터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 봉사과 후원자의 손길도 절실하다. 문의 : 02-703-6011

신앙에세이



이정환 목사
(분당B공동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자동차를 선택할 때 크기, 가격, 성능을 고려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서 선택 기준이 바뀌었다. 이제는 경제성과 가성비 좋은 차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왕이면 기름을 덜 먹는 차, 타면 탈수록 돈 버는 차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연비(Km/l)를 최우선으로 따진다. 최근 연비의 최고봉인 하이브리드(Hybrid)차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다. ‘하이브리드(Hybrid)’는 잡종이라는 뜻이다. 기름과 전기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운행시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라고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하이

브리드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훨씬 적은 기름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다.

나는 자동차처럼 인생에도 연비가 좋은 인생과 연비가 나쁜 인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교회 상담실을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많은 물질과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을 많이 본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면 행복은 자동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닐까? 착각이다. 돈을 많이 모으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좋은 음식을 먹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행복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들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두 다리 뻗고 살 만한데 우울증이 찾아왔다. 최선을 다해 대기업에 취직했고, 승승장구하면서 승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이 됐다.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연비(燃費)가 좋은 인생

연비가 나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연비가 좋은 인생이 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배움도 짧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연비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연비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 배움의 정도, 자선의 정도, 사회적 영향력 혹은 팔자와 운명일까. 아니다. 내 인생의 행동을 누가 잡고 있느냐다.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안다. 초보운전자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차선을 바꿀 줄 몰라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초보운전자다. 사실 우리 모두는 초보운전자다. 인생을 많이 산 어르신들도 오늘은 처음 살기 때문에

초보운전자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인생의 행동을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 그분은 초보운전자인 우리와 달리 베스트운전자이다. 그 분이 우리 인생의 행동을 잡으면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인도해주신다. 지금까지는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달려왔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열심히 헤치면서 달려왔다. 이제는 운전석에서 내려와야 할 때다.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기를 바란다. 베스트운전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삶이 규정 속도대로 흐르게 하고, 내 안에 백해무익한 것들을 털어내신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연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 옆 자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길이를 통해서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를 통해서 한때는 중요하게 생각됐지만 결국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기도에 관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요”(마 6:8).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다 아시지요?”였습니다.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을 귀찮게 할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저렇게 기도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신앙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다 아시지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 안다. 그런데 너는 다 알고 있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가 매우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질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하고 공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는 앞에서 공손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대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26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개’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욕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일반명사였습니다. 그 누구도 욕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거절하셔도 옳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겸

손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내가 구한 모든 것을 거절하셔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27절).

이 말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높이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인의 말을 듣고 활짝 웃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28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한 조각만 떨어진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순간만이라도 임재하신다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본 요리만 바라는 은혜가 아니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뻐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침묵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강미향 목사
(S브릿지공동체담임)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천국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구원이 단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것일까? 이제 마지막 천국행 티켓을 땀으로 안심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일까?

구원은 어둠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출애굽 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구원적인 삶을 주신다. 구원이라는 것은 암계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죄에 묶여 있던 고통의 삶에서 살리는 것이 구원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사는 것이다. 육이 죽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

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삶을 살아가는 때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 바로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땅에서 구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에서 맺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로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경험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어느 대형병원 해부학 시간에 참관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가운을 입고 소독하고 들어갔는데 시신 50구가 탁자위에 놓여있었다. 의료 발전을 위해 기증한 시신들이었다. 네 살짜리 아이부터 구십 세가 넘는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있었다. 그 시신들은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한 담당자가 메스를 대고 해부를 시작했다. 그 순간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시신들은 말이 없다는 것이다. 죽었기 때문이다.

영혼이 떠나면 인간은 물체와 같다.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영혼이 떠나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가리기 위해 묘를 잘 단장하고, 화장을 하고, 뱃가루를 강에 뿌리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몸이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가지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그 이후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구원의 사건은 단지 우리가 죽은 뒤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만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생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고 생명적 삶을 살게 된다. 그 생명의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영생의 선물이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 17:3).

여기서 아는 것은 단지 지식적 앎이 아니다.

전인격적으로 경험된 관계에서 오는 앎이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기초이자 중심인 구원관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원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10월 29일 ‘구원론’ 특강이 열린다. 신앙의 토대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초청한다.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진행된다. 구원론 특강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해결해야 할 2가지 문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과 구속의 관계’, ‘짜통구원과 거짓구원과 값싼 구원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구원의 은혜’,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가?’, ‘구원의 근거’, ‘거듭남과 중생’,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삶’,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구원론’ 특강〉
일시: 10월 29일 오후 1시 ~ 3시
장소: 온누리 서빙고 본관 2층 순형홀
강사: 강미향 목사

CGNTV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강연자와 시청자가 실시간 소통하는 특강쇼

최종회

<MC특집> 편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정지민 (KBS 공채 25기 개그우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공채 개그우먼이 되기까지



나도움 목사 (청소년 사역자, 도움달기 페이지 운영자)

나는 너의 도움!
학교에 교회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자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방송

MC 최윤영 아나운서

패널 임우현 목사, 나도움 목사, 정지민 개그우먼

지난 <MC특집> 다시보기

최윤영 아나운서 & 임우현 목사 편

나침반C
다시보기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